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만반 준비...하위법령 제정 착수”

정부, 특별법 공포 3개월 후 시행
전략투자공사설립위원회 먼저 출범
구윤철 “중동 불확실성 완화 기여”

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나섰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도 공포 직후 출범할 계획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주체로,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으로 설립된다.

기금 재원은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공사는 사업 추진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와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로 구성된다.

정부는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

에도 신속히 나선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대미투자 후보사업에

관한 예비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투자 의사결정·집행은 법 시행 후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국회 통과에 관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하고 대승적인 결단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중동지역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삼석, ‘국산 양파 가격 역전’ 농림부 질타

사료 오염·종자 부족 대응 미흡 지적
“생산구조 근본 체질 개선 필요” 강조



농림부 장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남·무안·신안)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구조적 대책 부재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간 수입

산 양파 가격이 국산 가격을 앞지르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이 1kg 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下)품 가격(678원)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유통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해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이번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현행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

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돼지는 사료 내 중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ASF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중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50%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수기자

채은지 시의회 부의장 “재선 도전”



채은지 부의장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12일 6·3 지방선거 북구 제6선거구 광주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채 부의장은 이날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곁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해 온 ‘작동하는 정치’ 경험으로 통합특별시 시대의 새로운 도시 설계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채 부의장은 “지난 4년간 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며 노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이끌었다”며 “보육대체교사 농성과 시내버스 과업 등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중재해 제도적 해결로 이어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채 부의장은 행정통합추진협의체 위원과 시의회 통합 대응 TF 부단장을 맡아 통합특별시 구상에 참여한 점을 강조하며 “준비된 시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 부의장은 주요 공약으로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 ▲북부순환도로 연결·지하철 공사 신속 추진 ▲우치공원·대야제 일대 ‘광주 패밀리아일랜드’ 조성 ▲영산강 및 하수관로 정비 ▲AI 산업과 지역 일자리 연계 등을 제시했다.

/변은진기자

권향엽 ‘이차전지 특별법’ 대표 발의

“기술 주권 확보 국가 지원 필요”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12일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차전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기기 등 첨단 산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기술패

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과 투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 고도화에 따른 투자 부담 증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향후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25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7.4% 하락한 36.3%를 기록해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별법안은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

가이차전지위원회 설치 ▲이차전지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특성화대학 지원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상징”이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산업 생태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